

데스크 시각

벼랑 끝에 선 예술영화 전용관



송기동 문화2부장

얼마 전 강연차 목포를 찾은 임권택 감독을 인터뷰했다. 이때 임 감독은 당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상영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던 부산영화제에 대해 "관이 개입해 부산영화제가 풍파를 맞았다. 밖(해외)에 나가면 외국 감독들이 내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매년 (한국은)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만 해서 심란하다"고 말했다. 50여 년간 영화 연출의 한길을 걸으며 관의 검열과 간섭을 수없이 겪은 노장의 탄식이었다.

요즘 예술영화 전용관(이하 전용관)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유일한 단관 예술극장인 광주극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전용관 운영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홀로서기'가 만만치 않다. 2014년 전체 수입의 35%를 차지하는 규모인 영진위 보조금을 포기하고 2년째 입장료와 대관·임대 수입만으로 운영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1년 된 광주극장 홀로서기

영진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오던 전용관 지원 사업 기준을 2015년 개악했다. 당초 연간 60%(219일) 이상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영진위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영화들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전용관에만 보조금을 지원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광주극장은 "(영진위가) 선정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통해 상영관과 관객의 다양한 영화 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상영되는 영화를 선별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그동안 지켜온 각 예술영화 전용관들의 특색 및 정체성을 획일화된 틀 속에 가두고 각 극장의 작품 선정 권리와 더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업"이라고 반

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를 '진흥'시켜야 하는 기관의 퇴행적인 정책이 되레 전용관을 '고사'시키고 있다. 파행을 겪던 부산영화제는 현재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해서 언제든 재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해 오던 터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전용관의 보조금 지원과 영화제의 근원적 문제가 오버랩된다.

올해로 광주극장은 개관 81주년을 맞는다. 1935년 10월 1일, 광주읍이 광주부(府)로 승격되던 날에 광주극장은 정식 개관했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연주회가 열렸고, 1948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연설을 한 의미 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70mm 와이드 스크린을 갖춘 단관 예술 전용관이다. 가끔 손으로 그린 영화 간판을 볼 수 있고, 임검서(臨檢席)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용관 보조금 정책 재고해야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장년 및 노년층 관객들이 이곳을 찾아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볼 수 없는 보석 같은 영화들을 관람한다. 광주극장을 한 번이라도 찾은 관객들은 알 것이다. 엄선한 좋은 영화만을 내걸고 광고 없이 제시간에 시작하는 극장의 따뜻함과 담백함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인 예술영화 전용관을 고사시키는 영진위의 보조금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일 것이다.

대자본의 물량 공세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득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닌 삶의 진실을 추구하며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곳, 그래서 더욱 광주극장의 공간적 가치가 빛난다. 더군다나 무등·제일·태평 등 지역 극장들이 자본 논리에 따라 하나둘 문을 닫고 이제 대기업 계열 멀티플렉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사이 광주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십시일반(十匙一飯) 힘을 모으고 있다. 관객들이 분투하는 극장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856석의 객석은 광주 문화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광주에는 80여 년 역사의 '광주극장'이 있다. 그리고 영사기는 계속 돌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광주 문화의 자긍심'인 광주극장의 역사는 죽~이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광주극장의 설명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매마른 대지에 가느다란 실뿌리들이 서로 얽혀 한 그루의 나무를 지탱하듯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한 푸르른 기운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밥값 못하는 국회,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 국한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진 급여(연간 3억7000만원), 차량유지·유류비(월 145만원), 의원사무실(45평) 제공 및 운영비(월 50만원), 전화·우편요금(월 90만원), 출장비 등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에 기타 보조금을 합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만 최소 6억 7600여 만 원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 대비 외국과 비교해보면 최고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보수에 대비한 경쟁력은 1위 노르웨이에 이어 스웨덴, 스위스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26위, 이탈리아 27위로 조사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많은 특권을 누리며 2014년에는 넉 달 동안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회 마지막 날 법안 140여 개를 무더기로 처리했다. 작년 12월 정기회에도 114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법안처리의 달인'이었다. 1개 법안마다 단 1분 50초에 처리한 셈이다. 올 5월 마지막 본회의 때도 쟁점 없는 130여 건을 기계식으로 처리하여 끝까지 실망시켰다. 결국 19대는 제정된 법안 처리율 역대최저 45.0%이고, 폐기된 법안만 만여 건으로 최악이었다. 회의 때 지리가 비면 '회의장 입장'을 방송하며, 들어 온 뒤에야 면피용으로 잠시 있다가 나가길 일수라고 한다. 참여연대의 이정감시센터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률 평균 89.8%,

상임위 출석률 84.7%이지만 자기 순서의 발언만 하고 나가는 의원들도 부지기수이며, 소위 똑똑한 의원들 본회의 참석률 60%대다. 이렇게 밥값 못하는 국회, 이제 우리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하리라.

한편, 몇몇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보좌진도 없는 작은 방 한 칸에 보좌관 1명이 의원 4명을 보조하지만 의원 한 명이 한 해 배 건이 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다고 한다. 또한 관리시스템도 엄격,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빠진 시간만큼 수당은 없으며 의사 발언권까지 박탈한다. 또한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거부하며 전체 의원의 1/3 정도가 자진거로 출퇴근하지만 하루 평균 12시간 일한다. 좁은 사무실에 비서는 작은 2명당 한 명, 사무실 가구도 자비로 구입, 회의 불참 시 대신할 의원을 알리는 등 이렇게 성실히 활동하니 무한 신뢰받고 있다. 올 4월 20대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되었다. 대쪽 물갈이론이 비등했으나 초선 의원 비율 42.3%(127/300명)에 그쳤으며 지난 6월 13일 여소야대 3당 체제로 개원했다. 그러나 개원하자마자 선거비용 뒷돈파문, 가족·친인척 보좌진 채용, 그리고 소위 '갑질' 등으로 비난이 높아지자,

'특권 폐지', '윤리특위권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는데 이런 일들은 처음이 아니라서 실행은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사면 조가', 총체적 위기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과 청년실업, 소득·노동 양극화, 계층·세대 갈등, 북한의 핵위협과 외교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다. 그래서 거로 출퇴근하며 보좌진도 없는 작은 방 하나에 보좌관 1명이 의원 4명을 보조하고 막말로 얼룩지고 있으니...

급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세비와 보조금을 받으며 수많은 특권을 누리다. 그래서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읽어야 한다. 20세기가 물량과 물질, 하드웨어 중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협업의 시대이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구태적인 의정 활동은 시대정신의 배신이며 직무유기이다. 국회의원, 자신들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평가의 수준은 스스로 결정한다. "세비와 특권은 최상급이나 경쟁력과 효과는 꼴짜다." 다시는 이런 말들을 듣지 않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社說

대구공항 이전 탄력...광주는 언제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엇그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의 군·민간 공항 기능을 통합해 옮기라고 지시했다. 이후 곧바로 대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후보지 탐색에 들어가는 등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침에는 소송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심각하다는 점 외에 정치적 의미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자 격양돼 있는 지역 민심을 다독거리려는 뜻이 숨어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많은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대구공항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은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해 더 이상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되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던 만큼 꼭 다른 의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무너진 잣고개 성곽 수개월째 방치했다니

무등산국립공원의 잣고개에 있는 무진고성(武珍古城) 동문지(東門址)가 지난해 붕괴됐지만 수개월째 보수공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무진고성(광주시 기념물 제14호)은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으로 광주시의 중요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진고성 동문지'의 남쪽 모서리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광주시 등은 지반 침하와 우수 유입 등이 붕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은 애초 복원 당시 잘못된 축조 기법과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성곽의 절반가량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야 할 정도로 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북구가 지난 4개월 동안 취한 조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테이프 설치가 전부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도 당연한 일인긴 하다.

어찌 됐든 대구공항 이전 계획이 앞서 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의 군·민간 공항 기능을 통합해 옮기라고 지시했다. 이후 곧바로 대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후보지 탐색에 들어가는 등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침에는 소송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심각하다는 점 외에 정치적 의미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자 격양돼 있는 지역 민심을 다독거리려는 뜻이 숨어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많은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대구공항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은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해 더 이상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되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던 만큼 꼭 다른 의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이 지역은 무등산 잣고개를 넘어 청풍삼터로 이어지는 무등산 옛길 1구간 사이 난봉 붕괴됐지만 수개월째 보수공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무진고성(광주시 기념물 제14호)은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으로 광주시의 중요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진고성 동문지'의 남쪽 모서리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광주시 등은 지반 침하와 우수 유입 등이 붕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은 애초 복원 당시 잘못된 축조 기법과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성곽의 절반가량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야 할 정도로 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북구가 지난 4개월 동안 취한 조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테이프 설치가 전부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도 당연한 일인긴 하다.

無等鼓

장마를 중국어로는 '메이위', 일본어로는 '쓰유'라고 하고 한자로는 매우(梅雨)라고 쓴다. 매실이 익을 즈음 내리는 비라는 의미다. 매실이 익어서 떨어질 때쯤 장마는 끝난다. 장마는 종종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중국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장맛비에 발목이 잡혀 멸망을 재촉하게 됐다. 중국을 통일한 양견(수문제)은 눈을 고구려로 돌렸다.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군신(君臣)의 예를 갖추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온 것이다. 이때가

장마와 역사

598년 6월로 장마철이었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지금의 라오하강 부근으로 나아갔지만 정작 고구려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눈수하게 됐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눈발이 물에 잠기고 불어날 강물이 때때로 강변사들이 부지기수였다. 전염병까지 돌아 병사들이 싸움도 하기 전에 쓰러졌다. 결국 양견은 하늘을 원망하며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수나라는 14년 후 양견의 뒤를 이은 양광(수양제)이 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살수대첩(천장강)에서 대패하면서 건국 37년 만에 멸망하는 운명을 맞았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도 명목상은 장마 때문이었다. 고려 우왕과 최영의 명을 받아 요동 정벌에 나선 이성계는 음력 5월 7일 위화도에 도착했다. 마침 장마철이 시작돼 장대비가 며칠간 계속됐다. 강물이 불어나 병사 수백 명이 익사했고 군량미도 떨어져 사기가 떨어지니였다. 이성계는 명나라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내 고신(君臣)의 예를 갖추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장마철에는 활을 붙여 놓은 아교가 녹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기 고

신창동유적지 유물관 건립 서둘러라



류복현 광주 광산구 향토문화연구소장

사단에 의해 53기의 옹관묘가 발굴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절끔 예순으로 해마다 보물급의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1세기 것으로 추정하는 '비파'라는 악기가 발굴돼 현재 서울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기원전 초기 철기시대 것으로 추정하는 수레바퀴 장식이 발굴돼 고대 선사시대의 학술자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고로 평가되는 155cm 두께의 비 갑질 층과 불에 탄 곡물, 현악기와 타악기를 비롯하여 베퉼마디, 철기, 인골 그리고 멧돼지, 짐승 뼈, 호도 씨와 오이씨, 소나무 꽃가루, 편충과 회충 알 등이 발굴되어 국립 광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난 2014년도에는 고대인들이 살았던 집터와 주춧돌 그리고 토반석들이 발굴돼 학자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대시대의 농촌취락을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수없이 출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면적과, 최고의 유물을 자랑하는 사적지

인데도 사실상 미봉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공주시에 무령왕유물박물관은 1970년대 공주시민들의 탄원으로 세워진 박물관이다. 당시 백제 무 왕릉주변을 보수하다가, 둔지에서 우연히 발견된 토기 파편이 감식결과 무령왕유물로 확인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용케도 일제강점기 도굴범들의 소행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보편적으로 고분의 형태들이 봉분으로 되어 있으나, 무령왕 능만큼은 둔지처럼 되어 있어, 범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분들이 도굴꾼들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무령왕 능의 유물은 그래서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발굴할 수 있었던 쾌거였다. 이 사실을 공주시민들은 정부에 탄원하여 유물박물관을 유지했고, 그 박물관은 오늘날 전국에 관광지로 뜨고 있다.

광주에 신창유적지도 이때는 방관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1992년도 이 지역은 국가사적지로 지정, 변경

2km 이내에는 모든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난개발이 진행돼 제재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변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오고, 물류창고가 지어져도 단순의 손길 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체에 조레개정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조연중 전 국립광주박물관 관장은 고시 이전에 시설된 인접 호남고속도로도, 언젠가는 사장된 유물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창동유적지는 또 오래전부터 풍수해로 밀려온 퇴적층이기 때문에 합부로 가능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예로 지난 2009년도에 신창동 산동교에서, 첨단도로 가는 극락강변 제방도로 보수공사에서도, 유물이 무더기 발견돼 작업을 중단할 일도 있었다. 그래서 사적지의 관심은 물론, 박물관이 유지되면 광주의 명소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여행대상사와 함께 공주 유물관광차량 유명세를 탈 수 있는 보물이 바로 신창동유적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D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투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